舊譯仁王經 口訣의 音韻史的 意義

李 丞 宰*

1. 머리말

이 글은 舊譯仁王經 口訣 자료의 音韻史的 意義를 논의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구역인왕경은 최초로 발견된 釋讀口訣 자료로서 借字表記 연구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온 자료이다. 석독구결 자료는 각종 문법 형태를 보여주는 장점이 있어서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문법을 연구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석독구결에는 여러 문법 형태의 통합 과정에서 일어나는 形態音素論的 交替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國語音韻史를 기술할 때에도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이 글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구역인왕경의 구결 자료가 가지는 음운사적 가치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李丞宰(1994)를 통하여 舊譯仁王經과 華嚴經 구결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형태음소론적 교체를 이미 논의한 바 있다. 그런데 미처 다루지 못하고 남겨 두었던 것과 중요한 내용을 빠뜨린 것이 있어 여기서 간단히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瑜伽師地論, 金光明經, 華嚴經疏 등의 석독구결 자료가 발굴되었고[1] 석독구결 전반에 대한 학계의 이해 수준

* 가톨릭대학교

1) 이들 자료에 대해서는 南豊鉉·沈在箕(1996)과 南豊鉉(1998), 李丞宰·沈在箕(1998), 鄭在永(1998), 鄭在永·南星祐(1998)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도 훨씬 높아졌으므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이 점도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의 하나이다.

音韻論은 表記法과 표리의 관계를 가진다. 표기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도달하지 않은 채 음운론을 전개한다면 자칫 사상누각을 지을 수도 있다. 특히 通時的 硏究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구역인왕경을 비롯한 여러 釋讀口訣의 表記法이 암시하는 바를 곧바로 音韻論的 事實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즉 표기법적 外延과 음운론적 內包가 상이할 수 있음을 잊지 않을 것이다.

2. 口訣 表記法의 音韻論的 限界

通時 音韻論은 문헌에 기록된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하므로 표기법과 표리의 관계를 맺고 있다.

내포라 할 수 있는 음운론적 사실이 표기법이라는 외연으로 실현될 때에 음운이나 음운 현상이 死藏되기도 하고 過剩 露出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表記가 不正確하여 音相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때도 많다.

死藏의 대표적인 예는 省略 표기이다. 생략에는 문법 형태 전체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완전 생략이 있는가 하면 형태를 표기하되 일부분을 드러내지 않는 부분 생략이 있다.

완전 생략의 대표적인 예는 동명사어미 '-ㅁ[ㅁ]'과 '-ㄱ[ㄴ]'의 생략이다.

(1) 가. 地ㅅ 及ㅎ 虛空ㅅ <u>ᄀᆞᄅᆞᆞᆫ</u> 大衆ㅣ 而ᇫ 住ᄒᆞᄫᆞᄆᆞ니ㅣ (구인 3:15)
나. 毗舍ㅅ 首陁ㅅ <u>ᄀᆞᄅᆞ</u> 神我等ᄒᆞᄀᆞ (구인 14:2)
다. 摩訶般若波羅蜜ㅅ ... 光讚般若波羅蜜ㅅ <u>ᄀᆞᄅᆞᆞᆫ</u>· 說ᄒᆞᄫᆞᄆᆞ니ㅣ (구인 2:23)
라. 三十七品ㅅ 四不壞淨ㅅ <u>ᄀᆞᄅᆞᆞᆫᄒᆞᄆᆞ</u> 摩訶衍ㅅ 化ᄀᆞᄅᆞᆞᆫ· 行ᄒᆞᄆᆞᄒᆞᄆᆞ니ㅣ (구인 2:25)

(2) 何以故ᄒᆞᄀᆞ 衆生 空ᄒᆞᄀᆞᄒᆞᄀᆞᄅᆞᆞᆫ <u>以ᄒᆞᄒᆞᄆᆞ</u> (구인 15:12)

(1)의 밑줄 친 'ㅅ[호]' 다음에서 동명사어미 '-ㅱ[ㅭ]'이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명사 병렬구를 뒷 문장과 연결할 때에는 동명사어미 '-ㅱ[ㅭ]'이 포함된 'ㅅㅱ[홇]'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다-라)의 'ㅅㄹ[홀]'을 'ㅅㅱ[홇]'의 誤記로 보아서는 안 된다. 'ㅅㄹ[홀]'의 '-ㄹ[ㄹ]'은 뒤에 오는 동사의 지배를 받는 대격조사로서 'ㅅㅱㄹ[홇올]'의 '-ㄹ[ㄹ]'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의 'ᄉᆞ[ᄊᆞ]-' 뒤에서도 동명사어미가 생략되었다. 그러나 이때에는 '-ㅱ[ㅭ]'이 생략되었는지 '-ㄱ[ㄴ]'이 생략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ㅇㅡ[ᄃᆞ로]' 바로 앞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분 생략의 예로는 다음의 예들을 들 수 있다.

(2) 가. 得ᄉᆞᄅᆞᄒᆞ(구인 15:4) → 得ᄅᆞᄒᆞ(구인 15:5)
나. 俱ㅌㅅㄱㄹ(구인 3:9) → 俱ㅅㄱㄹ(구인 3:10)

이들은 같은 유형의 문장에 나타나므로 생략 표기임이 분명하다. 이들에서는 어간의 일부가 생략되었다. 이른바 末音添記字가 표기되다가 어느 곳에서는 생략되는 예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개 이 부류에 넣을 수 있다.

過剩 露出된 표기도 적지 않다. 高麗 歌謠에 'ㄴ'이나 'ㄹ'의 重複 表記가 적지 않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와 유사하게도 구역인왕경 구결에는 'ㄱ[ㄴ]'의 중복 표기가 자주 등장한다.[2]

(3) 가. 時十 無色界ㅊㅈㄱ 量· 無ㅊㄱ 變ㅅㄱㅌㅊ 大香花ㄹ· 雨ㄹㄱㅁ (구인 2:14)
나. 相· 無ㅊㄱㅌㅊ 第一義ㄱ 自· 無ㅊㅎ 他作· 無ㅊㅎㅅㅏ (구인 14:24)
(4) 가. 百億高座ㄹ· 現ㅅㅎ 百億須彌寶花ㄹ· 化ㅅㅎㅅㄱㅌ· 有ㅊㅏㄱㅣ

2) 화엄경소와 화엄경 구결에서도 이러한 표기가 발견된다. 그러나 금광명경 유가사지론 구결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다.

(구인 2:2)

나. 二諦ㄱ 常ㅣ 卽ᄂᆞᆫᄐᆞ · 不矣ㅣᄂᆞᆫᄀᆞᆯᄉᆞ (구인 15:4)

다. 第一義ᄂᆡ 中ᄋᆞᆫ 世諦 · 有ᄂᆡ ᄂᆞᄆᆞᄆᆞᄉᆞᆫ 不矣ㅣᄅᆞᆫᄀᆞᄐᆞᆫ (구인 14:18)

(3)의 밑줄 친 '-ㄱᄐᆞᄂᆡ[ㄴ낫]'은 '-ㄱ[ㄴ](동명사어미)+ᄋᆞ[아](처격조사)+ᄂᆡ[ㅅ](속격조사)'의 형태론적 구성인데 'ㄱ[ㄴ]'을 중복한 결과 'ᄐᆞ[나]'가 쓰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는 달리 동명사어미 '-ㄱ[ㄴ]' 다음에 속격조사 '-ᄂᆡ[ㅅ]'이 통합된 것인데, 동명사어미가 중복되고 매개모음이 첨가되어 'ᄐᆞ[ᄂᆞ]'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어느 해석을 택하든 '-ㄱ[ㄴ]'의 중복을 인정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나 (4)의 예들도 중복 표기의 예라고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다음의 예들은 'ㄱ[ㄴ]'의 중복을 증명해 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5) 가. 八部阿須輪王ㄱ ... 正位ᄋᆞᆫ · 人ᄂᆞᆫᄀᆞᄐᆞᄀᆞᆯᄊᆞᆸ ... 正位ᄋᆞᆫ · 人ᄂᆞᆫᄀᆞᄐᆞᄀᆞᆯᄊᆞᆸᄂᆞᆫᄀᆞᆫᄀᆞ (구인 11:17-18)

나. 聖人性ㄹᆞ · 證ᄂᆞᆫᄀᆞᄐᆞᄀᆞᆯᄀᆞ 一切無量報ㄹᆞ · 得ᄐᆞᄀᆞᆯᄂᆡᄀᆞ (구인 11:18-19)

위의 'ᄂᆞᆫᄀᆞᄐᆞᄀᆞ[혼나도]'가 'ㄱ[ㄴ]' 중복 표기 예에 속한다는 사실은 (5.나)의 '得ᄐᆞᄀᆞ[얻나도]'에서 잘 드러난다. 이때의 '-ᄐᆞ[나]-'가 어떤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得ᄐᆞᄀᆞ[얻나도]'에서는 'ㄱ[ㄴ]'이 보이지 않는다.[3] 이 점을 중시하여 'ᄂᆞᆫᄀᆞᄐᆞᄀᆞ[혼나도]'의 'ㄱ[ㄴ]'은 중복 표기라고 할 수 있다.

舊譯仁王經 구결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華嚴經疏와 華嚴經에는 'ㄹ[ㄹ]'의 중복 표기가 자주 나온다.

(6) 滅ᄂᆞᆷᄀᆞ ㄹᄆᆞᄆᆞᄉᆞ(화소 7:3, 7:4), 血肉ㄹᆞᄆᆞ(화소 16:9), 歸ᄂᆞᄀᆞ ㄹᆞᄆᆞ(화엄

3) 이처럼 어간에 바로 '-ᄐᆞᄀᆞ'가 통합된 것으로 다음 예를 더 들 수 있다.
得ᄋᆞᄒᆞᆫ 毫末許ᄋᆞ · 如ᄒᆞᄂᆞᆫᄐᆞᄀᆞᆯ 衆生ㄹᆞ 饒益ᄂᆞᆫᄋᆞᆫ (화소 10:10)

3:15), 多ナ ㄱ のㄹ ᄆ(화엄 2:11)

'-ᄆ[로]' 하나로도 구격조사를 충분히 표기하는데도 그 앞에 'ㄹ[ㄹ]'이 중복된 예가 적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 'ㄹ[ㄹ]' 중복 표기는 앞에 오는 음절이 자음으로 끝날 때로 한정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4)

(7) 血肉ㄹ ᄆ, 因緣ㄹ ᄆ, 至誠ㄹ ᄆ, 相ㄹ ᄆ, 光ㄹ ᄆ, 力ㄹ ᄆ, 方便ㄹ ᄆ, 塵ㄹ ᄆ ハ, 方便門ㄹ ᄆ, ノ尸ㄹ ᄆ, ンㄱ ㄹ ᄆ,

이것은 음운론적으로 매개모음 '-ᄋᆞ/으-'의 존재를 암시한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매개모음은 앞에 오는 음절이 자음으로 끝날 때 통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유독 이 音韻論的 環境에서만 'ㄹ[ㄹ]'이 중복 표기된다는 것은 매개모음 '-ᄋᆞ/으-'를 의식적으로 표기에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를 중시하여 高麗 中期에 이미 매개모음 '-ᄋᆞ/으-'가 존재하였다고 추정해 둔다.

구결 자료는 표기가 不正確하여 音相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때가 적지 않다. 구격조사 '-ᄆ[로]' 앞에 매개모음 '-ᄋᆞ/으-'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지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지 지금까지도 객관적 논거가 제시된 적이 없다. 매개모음을 표기하는 口訣字가 아예 없기 때문에 (7)과 같은 예로써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유추를 확장하여 적용하면 조사류 '-ㄱ[ㄴ], -ㄹ[ㄹ]'과 동명사어미 '-ㄱ[ㄴ], -尸[ㅱ], -ㅂ[ㅁ]' 등의 바로 앞에도 매개모음이 설정될 수 있다.

구결 표기 체계의 불완전성은 하나의 문법 형태를 하나의 구결자로 적는 관습에서 비롯된다. 訓民正音에서는 대격조사가 '-ᄅᆞ, -ᄋᆞᆯ, -을, -ᄅᆞᆯ, -를'의 다섯 가지로 표기가 되나 구결에서는 '-ㄹ[ㄹ]'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따라서 구결 표기만으로는 이들 異形態가 고려 중기에 이미 음운론적 이형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다. 이른바 주제 보조사 '-ㄴ, -ᄋᆞᆫ, -은, -ᄂᆞᆫ, -는'에 대응하는 '-ㄱ[ㄴ]'과 부동사어미(연결어미) '-아, -어'에 대응하는 '-ㅇ[아]'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4) (6)의 '多ナ ㄱ のㄹ ᄆ'만이 예외적이다.

일부의 예에서는 형태음소론적 교체를 표기에 그대로 반영하기도 한다. 그 예로 부동사어미 '-ㅇㅏ[아]'에 대응하는 '-ㅑ[야]'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예에서 부동사어미는 '-ㅇㅏ[아]' 하나로 통일되어 있으나 다음의 예에서는 특이하게도 '-ㅑ[야]'가 나타난다.

(8) 名ᄉᆞᆞ(구인 2:24), ᄉᆞᆞᄐᆞᄅᆞᄀᆞのᄀᆞᄉᆞᆞ(구인 3:17), ᄂᆞᄀᆞᄀᆞᄉᆞᆞ(구인 15:8의 欄上)

위의 예에서처럼 '-ㅑ[야]'는 'ᄉᆞ[ᄒᆞ]-' 다음에만 통합되므로 이 구결자는 '야'를 표기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ㅑ'는 구역인왕경 구결에만 나오는데 '也'字의 마지막 획을 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정이 옳다면 고려 중기에 이미 '-아/야'의 형태음소론적 교체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결 표기법은 정확한 音價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15세기의 '다ᄋᆞ-'에 대응하는 '盡ㅇㅏ-'와 15세기의 시상법 어미 '-더-'에 대응하는 '-ㅣ[다]-'를 들 수 있다.

(9) 盡ㅇㅏᄃᆞᄀᆞのᄆᆞᄅᆞㅣ(구인 11:2), 盡ㅇㅏㅁ(구인 11:3, 11:4), 盡ㅇㅏㅌㅛ(화엄 8:1), 盡ㅇㅏㄲ(화엄 9:7)

(10) 가. 是ㅔ 月光王ᄀᆞ ... 四住ㄹ 開ᄉᆞᄅᆞㄲ· 爲のᄀᆞᄉᆞㅣᄂᆞᄀᆞᄀᆞ (구인 11:20-21)

나. 我ᄀᆞ 八住ㄹ 菩薩ㅔㄲ· 爲のᄀᆞᄉᆞㅣㅅㅂㅁᄅᆞᄀᆞのᄆᆞ (구인 11:22)

'盡ㅇㅏ-'의 'ㅇㅏ[아]'는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末音添記字에 해당하므로 '盡ㅇㅏ-'는 '다ᄋᆞ-'에 대응한다. 이 대응에서 구결자 'ㅇㅏ[아]'가 'ᄋᆞ'의 표기에도 이용되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즉 '아'의 표기에 주로 이용되는 구결자 'ㅇㅏ[아]'가 'ᄋᆞ'도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 (10.가)의 밑줄 친 부분에서는 주어가 月光王인 것과 어미의 형태론적 구성을 감안하여 '-ㅣ[다]-'가 15세기의 '-더-'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대응을 그대로 믿는다면 구결자 'ㅣ[다]'는 '다'뿐만 아니라 '더'의 표기에도 이용된 셈이다.

어떤 이는 이 자료를 음운론적으로 해석하여 "고려 중기의 모음 '아'는 'ᄋᆞ'뿐만 아니라 '어'와도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ᄋᆞ'와 '어' 모음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성급하고도 신중하지 못한 연구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확인법 어미 '-ㅿ[거]-'는 일부의 형태론적 구성에서는 '-ㅁ[고]-'로도 나타나고, '見尸矣ㄴᆞᆼᄀᆞ'(구인 15:9)의 '矣ㄴᆞᆼ[딧ᄒᆞ]-'는 15세기의 'ᄃᆞᆺᄒᆞ-'에 대응한다. 이들을 논거로 하여 '어'와 '오' 모음에서 하나를 없애고, '이'와 'ᄋᆞ' 모음에서 역시 하나를 없앨 수 있을까? 이러한 태도에 따르면 당시의 모음은 '이, 아, 오'의 3개 정도로 줄어들지도 모른다. 이것은 極端的 單純化의 誤謬에 빠질 수 있다.

구결 자료를 이용하여 音韻體系를 재구하는 작업을 시도하는 이들도 있다. 물론 불가능할 것은 없다. 그러나 구결 자료는 주로 문법 형태만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법 형태에 나오는 자음과 모음만을 정리하여 당시의 음운체계를 재구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유추해 보기로 하자. 현대국어의 문법 형태에는 'ㄸ, ㅃ, ㅉ, ㅌ, ㅍ' 등의 자음과 '왜, 웨, 애, 위' 등의 모음이 보이지 않는다. 만약에 문법 형태에 나오는 음운만을 대상으로 하여 음운체계를 작성한다면 이들 자음과 모음은 현대국어의 음운 목록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이들을 제외한 음운체계는 아무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게 된다. 문법 형태에 나오는 음절만을 정리하여 音節構造 체계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로 무의미하고도 비사실적이다.

따라서 음운체계나 음절구조를 논의하려면 語彙 形態를 연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각종 개별 어휘에 등장하는 특이한 음운이나 음절을 배제한 채 음운론을 펼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구결 자료는 각종 개별 語彙 形態의 音相을 정확히 보여주지 못한다. 借字表記에서는 개별 어휘가 訓借로 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음상을 드러내더라도 末音添記字 정도로 한정되므로 개별 어휘 형태의 정확한 음상을 온전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차자표기를 대상으로 하여 음운체계나 음절구조 체계를 재구하는 일은 아주 위험하다.

釋讀口訣 자료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이 위험은 가시지 않는다. 석독구결 자료가 문법론과 음운론을 기술할 때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석독구결 자료가 가지는 한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口訣字는 表音文字가 아니다. '丬[ㄱ], ㄱ[ㄴ], 乙[ㄹ], 尸[ㅱ], 厶[ㅁ], 七[ㅅ]' 등의 일부 구결자는 마치 표음문자인 것처럼 기능하는 때도 있으나 대부분의 구결자들은 音節文字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구결 자료는 音素 單位의 音韻論을 전개하는 데에는 특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3. 舊譯仁王經의 形態音素論

석독구결 자료는 音價論을 전개할 때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일부의 形態音素論的 交替를 논의할 때에는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한다. 문법 형태 사이에서 일어나는 형태음소론적 교체 현상은 음운론 기술의 주요 대상인데, 이 교체가 구역인왕경을 비롯한 여러 석독구결 자료에 적잖이 반영되어 있다.

석독구결 자료에서의 몇 가지 형태음소론적 교체에 대하여 李丞宰(1994)에서 필자의 견해를 이미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뒤로 새로운 자료들이 공개되고 새로운 논의가 이어졌으므로 이에 대하여 필자의 견해를 조금씩 덧붙여 보기로 한다. 그런 다음 아직도 크게 거론된 적이 없는 몇 가지 교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일 것이다.

계사 '-ㅣ[이]-'나 그 통합형인 '-ᄒᆞ[리]-' 뒤에서 'ㄱ'이 약화·탈락하는 규칙이 12세기 경에 발생하였다(李丞宰 1994). 그런데 논거 중의 하나였던 '-ᄋᆞ七[앗]-'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다. 박진호(1998)은 이 '-ᄋᆞ七[앗]-'을 상대경어법(공손법) 어미의 일종이라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ㅣᄋᆞ七[이앗]-'의 예들은 'ㄱ' 약화·탈락의 예들에서 제외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李丞宰(1994)의 'ㄱ' 약화·탈락 규칙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논거들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11.가)의 '不矢ㅣㅁㄹ分[안디이골며]'와 (11.나)의 '不矢ろㅣ[안디오다]'를 들 수 있다.

(11) 가. 若七 言ニ尸 無七ㅣ<u>ソニろ末尸のㄱ</u> 者 智ㄱ 二ㅣ方· 應七ソㄱ· <u>不矢ㅣㅁㄹ分</u> (구인 14:18-19)
나. 若七 言ニ尸 有七ㅣ<u>ソニロ末尸のㄱ</u> 者 智ㄱ 一ㅣ方· 應七ソㄱ· <u>不矢ろㅣ</u> (구인 14:19)

이 둘은 같은 문형에 속하므로 '不矢ろㅣ[안디오다]'는 '不矢[안디](부정소) + ㅣ[이] (계사) + ㅁㄹ[골](강조법) + ㅣ[다](종결어미)'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계사 '-ㅣ[이]-'가 뒤에 오는 '-ㅁㄹ[골]-'의 'ㄱ'을 떨어뜨렸다. 그런 다음 계사가 생략되고 '-ㅁㄹ[골]-'의 'ㄹ[ㄹ]'이 탈락하여 '不矢ろㅣ[안디오다]'가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사나 그 통합형 뒤에서의 'ㄱ' 약화·탈락은 여전히 유효하다.

존경법 선어말어미 '-ナ[겨]-'는 'ㄱ' 약화·탈락의 대상이 아니다. 앞의 '-ㅁㄹ[골]-'이나 의문법 어미 '-ㅁ[고]'는 'ㄱ' 약화·탈락을 경험하였으나 '-ナ[겨]-'의 'ㄱ' 은 약화·탈락하는 일이 없다. 이것은 'ㄱ' 약화·탈락 현상이 일부의 문법 형태에만 적용되는 형태론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박진호(1998)은 또한 존경법 어미 '-ゐ/ニ[시]-' 뒤에서도 'ㄱ'이 약화·탈락한다고 논의하였다. 15세기의 존경법 어미 '-시-' 뒤에서는 'ㄱ'이 약화·탈락하는 일이 없으므로 이것은 아주 과감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12) 가. 波斯匿王ㄱ 言ニ尸 <u>善ニろㄱ彳</u> (구인 3:20)
나. <u>善ゐロㄱ 哉彳</u> 仁者ミ 諦ㅣ 聽ゐ方方 應七ソナㅣ (화엄 9:2)

(11.가)의 'ソニろ末尸のㄱ[ᄒᆞ시오ᄅᆞᆯ둔]'과 (11.나)의 'ソニロ末尸のㄱ[ᄒᆞ시고ᄅᆞᆯ둔]' 그리고 (12)의 밑줄 친 '가'와 '나'를 각각 대조해 보면 'ㄱ'의 약화·탈락이 확인된다. 따라서 구역인왕경 구결에서는 '-ニロ[시고]-'

가 '-ㅈㅎ[시오]-'로 교체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구역인왕경을 제외한 다른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존경법 어미 다음에서의 'ㄱ' 약화·탈락 현상이 눈에 띄지 않는다. 존경법 어미 '-ㅈ[시]-'나 '-ㅈ[시]-'의 '이' 모음이 과연 'ㄱ' 약화·탈락의 동화주로 작용하였는지 검토할 필요도 있다. 또한 '-ㅈ[시]-'의 바로 뒤에 온 '-ㅁ[고]-'를 상대경어법(공손법) 선어말어미로 간주할 수도 있으나 같은 범주의 '-ㅇㅅ[앗]-'과의 관계가 불명확하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李丞宰(1998)에서는 'ㄱ'의 약화·탈락을 경험하는 '-ㅁ[고]-'의 기본형을 '-ㅁㄹ[골]-'로 보고 이를 강조법(감탄법) 어미의 일종이라 한 바 있다. 이 강조법 어미는 존경법 어미 '-ㅎ/ㅈ[시]-'나 '-ㅅ[겨]-'의 뒤에 오므로 그 앞에 오는 확인법의 '-ㅁ[고]-'와는 구별된다. 기본형 '-ㅁㄹ[골]-'의 'ㄹ[ㄹ]'은 'ㄴ, ㄷ, ㄹ, ㅅ' 등의 舌端([+coronal]) 자음 앞에서 탈락한다.

(13) 가. ᄉᆞᄆᆞᄅᆞᄒᆞᄒᆞᄆᆞ(화소 10:11), ᄉᆞᄃᆞᄆᆞᄅᆞᄒᆞㅣ(화소 10:19), ᄂᆞᄀᆞᄈᆞᄆᆞᄅᆞᄒᆞㅣ(화소 11:9), 說ᄒᆞᄆᆞᄅᆞᄒᆞᄀᆞᄈᆞᄆᆞ(화엄 8:23), ᄉᆞᄂᆞᄆᆞᄅᆞᄒᆞᄉᆞㅣ(화엄 9:7), ᄉᆞᄂᆞᄆᆞᄅᆞᄀᆞ(구인 11:10), ᄉᆞᄂᆞᄆᆞᄅᆞᄀᆞ(금광 13:5)

나. 久ᄃᆞᄒᆞᄒᆞᄆᆞᄀᆞᄒᆞ(화소 11:19), 功德ᄈᆞᄆᆞᄇᆞᄀᆞᄒᆞ(화엄 9:6), ᄉᆞᄂᆞᄆᆞᄃᆞᄀᆞᄈᆞᄀᆞᄃᆞᄉᆞᄒᆞ(구인 3:20), ᄉᆞᄆᆞᄆᆞᄋᆞᄀᆞ(구인 14:7), 獲ᄂᆞᄆᆞᄀᆞᄈᆞᄒᆞㅣ(금광 13:10), ᄉᆞᄂᆞᄆᆞᄆᆞㅗ(금광 13:13), ᄂᆞᄒᆞᄂᆞᄆᆞㅣ(금광 13:20), 其塔ᄈᆞᄂᆞᄆᆞᄀᆞᄉᆞᄆᆞㅗ(금광 15:11)

(13.가)의 '-ㅁㄹ[골]-'은 기본형이고 (13.나)의 '-ㅁ[고]-'는 'ㄹ' 탈락 규칙이 적용된 이형태이다. 위의 예에서 'ㄹ' 탈락 규칙은 'ㅁ'과 같은 非舌端([-coronal]) 자음 앞에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入ㄹㅌㅛ[들나셔](화엄 4:19)'와 같은 예외가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곳의 '-ㄹ[ㄹ]-'은 어간 '들-'의 'ㄹ'에 해당하는데 '-ㅌ[나]-'의 'ㄴ' 앞에서도 탈락하지 않은 것이다. 이 '-ㄹ'이 어간 모음이라 탈락을 모면한 것인지 아니면 'ㄹ' 탈락이 수의적으로 적용되어서 그런 것

인지는 아직은 밝힐 수 없다.

그런데 '-ㅁㄹ[골]-'과 비슷하게도 '-ㅌㄹ[날]-'이 보여 눈길을 끈다. 구역인왕경의 語尾構造體 '-ㅁㅌㄹᄀᆞ[고날며]'에 나오는 '-ㅌㄹ[날]-'이 바로 그것이다.[5]

(14) 가. ᄂᆞᄆᆞᄐᆞㄹᄀᆞ(구인 2:15), ᄂᆞ白ᄆᆞᄐᆞㄹᄀᆞ(구인 11:11), ᄂᆞᄆᆞᄐᆞㄹᄀᆞ(구인 11:12)

나. 如ᄉᆞᄂᆞᄆᆞᄐᆞᄀᆞ(화소 9:12), ᄂᆞᄆᆞᄐᆞᄀᆞ(화엄 14:20), ᄉᆞᄆᆞᄆᆞᄐᆞᄀᆞ(화엄 14:24), 現ᄀᆞᄆᆞᄐᆞᄀᆞ(화엄 15:9)

(14.가)의 예들은 자음 'ㅁ' 앞의 'ㄹ'이 탈락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화엄경소와 화엄경의 구결에서는 '-ㅁㅌㄹᄀᆞ[고날며]'가 보이지 않는 대신 '-ㅁㅌᄀᆞ[고나며]'가 나온다. 여기에서 '-ㅌㄹ[날]-'을 기본형으로 삼고 'ㄹ' 탈락 규칙을 적용하면 '-ㅌ[나]'가 된다는 논의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화엄경소나 화엄경 구결이 시기적으로 구역인왕경보다 앞선다는 점을 감안하면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정작 '-ㅌㄹ[날]-'의 '-ㄹ[ㄹ]-'이 '-ㅌ[나]-'에 동반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독립 형태소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섣부른 단정은 금하기로 한다.

李丞宰(1994)에서는 종결어미(정동사어미) '-ㅣ[다]'가 계사 '-ㅣ[이]-'나 그 통합형 '-ᄒᆞ[리]-' 뒤에서 '-ㅛ[라]'로 교체되는 隨意的 規則이 12세기 경에 적용되기 시작했음을 논의하였다. 그런데 李建植(1996)에서는 종결어미 위치의 '-ㅣ[다]'가 '-ㅛ[라]'로 교체되는 일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ㅣ[다]'가 '-ㅛ[라]'로 교체되는 것은 종결어미 위치가 아니라 연결어미 위치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段落의 마지막 위치에 오는 '-ㅣ[다]'가 '-ㅛ[라]'로 교체되는 일은 없다.

그러나 李建植(1996)에서 연결어미라고 본 것 중에는 종결어미로 간

---

5) 금광명경의 다음 예들은 형태론적 구성이 다른 예들이다.

ᄂᆞᄐᆞᄑᆞㅗ(금광14:17), 成熟ᄉᆞᄀᆞᄐᆞᄑᆞㅗ(금광14:18), 說ᄐᆞᄑᆞㅗ(금광14:21), ᄐᆞᄑᆞᄀᆞ(금광14:24)

주할 수 있는 것들도 적지 않다.

(15) 가. 我ㄱ 今丷ㄱ 已氵 諸ㄱ 菩薩尸 爲氵 佛矢 往阝十 修ㄋ𢀳ㄱㅌ七 淸淨行乙 說阝口乙𢀳ㄱ刂罒 仁刀 亦丷ㄱ 當八 於此刂 會七 中阝七丷阝八 修行丷ㄋ𢀳ㄱㅌ七 勝功德乙 演暢丷口八ㄋ立 (화엄 8:23-24)

나. 生死乙· 損· 不冬丷二ㄱ入灬 故丿 願丷阝亦 尊ㄱ 涅槃乙· 證丷二口ㄱ刂罒 二法見乙· 過丷二ㄱ入灬 故丿 是故灬 寂靜乙· 證丷二口ㄱ刂阝七分 (금광 13:8-9)

밑줄 친 예들의 '-罒[라]'를 연결어미 위치에 온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罒[라]'를 계사 '-刂[이]-'와 연결어미 '-阝[아]' 사이에 'ㄹ'이 삽입되어 형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선행문과 후행문은 因果關係로 맺어진다는 것을 함의한다. 또는 선행문이 후행문의 前提가 된다. 그러나 위의 예에서는 선행문과 후행문이 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다 > -라' 교체와 관련하여 內包文이나 被引用文의 종결어미 '-丨[다]'가 '-罒[라]'로 교체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16) 가. 世間ㄱ 有邊刂丨 ... 世間ㄱ 非有邊 非無邊刂丨丿尸人 (화소 5:11-6:8)

나. 云何七丷ㄱ乙 十地七 行乙· 護丿令七 因緣刂丨丷口ろ令ろ (구인 3:23)

다. 一刂丨丷口尸のㄱ 亦丷ㄱ 續丷令· 不矢分 異刂丨丷口尸のㄱ 亦丷ㄱ 續丷令· 不矢ㄱの灬氵 (구인 14:7-8)

라. 大王下 法輪刂丨丷ㄱのㄱ (구인 15:22)

마. 衆生ㄱ ... 見尸· 不八丿禾ナㄱ刂丨丷ㅌ八二丨 (금광 15:2)

바. 云何丷ㄱ乚 聞正法圓滿刂丨丿令口 (유가 4:6)

위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내포문이나 피인용문의 '-刂丨[이다]'는 '-刂罒[이라]'로 교체되는 일이 없다. 이것은 이 환경에서의 '-이다 > -이라' 교체가 다른 환경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음을 뜻한

다. 현대국어에서는 이 환경의 '-이다'가 '-이라'로 교체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다. 내포문이나 피인용문에서의 교체가 늦게 시작된 교체인 만큼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늦게까지 명맥을 이어온 것이 아닌가 한다.

15세기에는 이른바 의도법 어미 '-오/우-' 뒤에서도 '-다 > -라' 교체가 일어났다. 그러나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ㅁ/ㄹ[오]-' 뒤의 '-ㅣ[다]'가 '-ㅛ[라]'로 교체되는 일이 없다.

(17) 가. 我ㄱ 今ㅅㄱ 貧窶ㅅㅕ 衆ㄱ 苦ㅱ 逼迫ㅅㄱㅣㄹㅁㄹㅣ (화소 11:9)
나. 我ㄱ 當ㅏ 統領ㅅㅕㅏ 王ㅋ 福樂ㄹ 受ㅌㅔㅅㅓㄹㅁㄹㅣㅅㅓㄱㅣㅓ (화소 11:10)
다. 我ㄱ 今ㅅㄱ 略ㅈ 佛ㄹ· 歡ㅅㅂㅁㅏㄹㅣㅅㅂㅎㅡㅣ (구인 11:13)
라. 我ㄱ 今ㅅㄱ 說ㅅㅓ· 無ㄴㅂㅁㄹㅣ (구인 14:21)

이 예들의 '-ㅁ/ㄹ[오]-'가 의도법 어미임은 주어가 '我'인 데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오/우-' 뒤에서의 '-다 > -라' 교체는 高麗 中期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李丞宰(1994)에서 미처 논의하지 못했던 것을 몇 가지 덧붙이기로 한다. 15-6세기의 한글 문헌에서는 시상법 어미 '-ᄂᆞ-'에 '-오-'가 통합되면 '-노-'로 실현된다. 그런데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이러한 縮約이 흔하지 않았다.

(18) 受ㅏㅁㄱㅅㅅㄱ(화소 9:15), ㅅㅎㅏㅁㄱㅅㅓㄹ(화엄 13:4), ㅅㄴㅏㄹㅋㅅㅓㄱ(구인 2:23), ㅅㅂㅁㅏㄹㅣ(구인 11:13), ㅅㅏㄴㅅㅓㄱㅅㅓㄹ(금광 4:22), ㅅㅏㄴㅅㅓㄱㅅㄴ(유가 27)

위의 여러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상법 어미 '-ㅏ[ᄂᆞ]-'의[6] 바로

6) '-ㅏ-'를 '-누-'로 읽기도 하나 여기서는 15세기의 음상을 따라 '-ᄂᆞ-'로 읽어 둔다. 일부의 학자들은 '-ㅌ-'가 시상법 어미 '-ᄂᆞ-'에 대응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ㅏ-'는 예외 없이 '-ᄂᆞ-'에 대응하는 데에 비하여 상당수의 '-ㅌ-'는 시상법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뒤에 이른바 의도법 어미 '-ㅁ/ㅎ/ㄴ[오]-'가 오거나 동명사어미 '-ㄱ[ㄴ]'이 동반하는 '-ㅁ/ㅎ/ㄴ[오]-'가 오더라도 축약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7]

그런데 일부의 예에서는 '-ㅏ[ᄂᆞ] + ㅁ/ㅎ/ㄴ[오]-' 구성이 '-ㅛ[노]-'로 축약되었다.

(19) 가. 有ㅐㅛㄱ(화소 10:8), ㄴㅛㄱ(구인 11:23), ㄴㅛㅁ(금광 15:15)
나. 或ㅁ 有ㅐㅣ 諸ㄱ 天廟ㄹ 謁ㄴㅏㅁㄱㅇㄹ 示ㅢㅛㄱㅊㅗㅣ 或ㅐㅣ 復 ㄴㄱ 恒河水ㅇㅓㅂ 入ㄴㄱㅇㄹ 示ㅢㅛㄱㅊㅗㅣ (화엄 19:24)

이 축약이 수의적이었음은 (19.나)에서 잘 드러난다. '謁ㄴㅏㅁㄱㅇㄹ[ᄒᆞᄂᆞ온ᄃᆞᆯ]'에서는 '-ㅏㅁ[ᄂᆞ오]-'가 유지되었지만 '示ㅢㅛㄱㅊㅗㅣ[보이ᄂᆞᆫ디여]'에서는 '-ㅛ[노]-'로 바뀌었다. 따라서 '-ᄂᆞ + 오-'가 '-노-'로 축약되는 현상은 12세기 경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상법 어미 '-ㅏ[ᄂᆞ]-'는 축약의 대상이었지만 존경법 어미 '-ㅱ[시]-'는 전혀 축약되지 않았다. 석독구결 자료에는 '-ㅱ[시]-'의 바로 뒤에 '-ㅁ[오]-'가 온 예들이 아주 많다. 15-6세기의 문헌 자료에서는 '-시-' 다음에 '-오-'가 직접 통합되면 '-샤-'로 교체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도 석독구결 자료에는 '-ㅱㅁ[시오]-'가 버젓이 등장하여 흥미롭다.

(20) ㄴㅱㅁㄱㅅㅁ(화소 11:19), ㄴㅱㅁㅍ(화소 13:13), ㄴㅱㅁㄱㄹㅓ(화엄 3:13),

---

7) 이 부류에 다음 예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幻化ㅇㅓㅂㄴㅇㅓㅂ 幻化ㄹ 見ㅏㅈ 衆生ㄹㄴㄱㄹㄴㅅ 名ㅇㅓㅂ 幻諦ㅅㄴㅎㅢㅁ (舊仁 十五 8의 欄上)
이 예의 '見ㅏㅈ'은 '보ᄂᆞ온'으로 읽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이곳의 '-ㅈ'를 '-오'로 읽으면 형태·통사론적 구성이 어그러지기 때문이다. 이 독법에 따르면 구역인왕경의 구결자 'ㅈ'는 '乎'字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ㅈ'가 '오'뿐만 아니라 '온'도 표음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聽ㅎㅁㅁ(화엄 9:2)

석독구결의 표기법을 잘 관찰해 보면 이 '-ㅎㅁ[시오]-'를 '-샤-'로 읽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하나의 음절을 두 개의 구결자로 표기한 예가 거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음절이었던 '-ㅎㅁ[시오]-'가 통시적 변화를 겪어 하나의 음절인 '-샤-'로 축약되었다고 기술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한다.

'-ㅎㅁ[시오]-'가 '-샤-'로 축약된 것은 13세기말이나 14세기초의 誦讀口訣 자료에 들어서서의 일이다. 따라서 '-ㅏㅁ/ㅏㄹ[ᄂᆞ오]- > -又[노]-'의 축약이 먼저 일어난 뒤에 '-ㅎㅁ[시오]- > -솨[샤]-'의 축약이 그 뒤를 따랐다고 할 수 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석독구결에서는 존경법 어미 '-ㅎ/ㄷ[시]-' 바로 뒤에 부동사어미(연결어미) '-ㅇ[아]'가 오는 일이 없다. 그 대신 '-ㅎ下/ㄷ下[시하]'가 그 자리를 메운다.

(21) 莫七ㅎ下ㅅ(화소 10:20), 垂ㅂㅎ下ㅅ(화소 12:12), ㅅㄷ下(구인 11:3), 樹ㅂㄷ下(구인 11:9)

이들은 존경법 어미 '-ㅎ/ㄷ[시]-' 뒤에 연결어미 '-ㅇ[아]'가 올 때 특이하게도 'ㅎ'이 삽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ㅎ' 삽입 현상은 존재동사 '有ナㅎ下[겨시하], 有ナハㄷ下[격시하]'에서도 확인된다.

'ㅎ'이 삽입된 또 다른 예로 다음의 '-ㅂ下[이하]'를 들 수 있다.

(22) 令ㅂ下(화소 16:15), 正住ㅅㅂ下(유가 14)

'令ㅂ下, ㅅㅂ下'는 모두 'ᄒᆞ이하'로 읽히는데, 사동 접사 '-이-'를 포함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에 따르면 'ㅎ' 삽입 현상은 존경법 어미나 사동 접사의 '-이-' 뒤에서 수의적으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4. 마무리

지금까지 구역인왕경을 비롯한 석독구결 자료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음운 현상을 피상적으로나마 논의하였다. 논의된 바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통시 음운론 연구는 문헌에 기록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표기법 연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표기를 그대로 믿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하여 완전히 불신해서도 안 된다.

생략된 표기나 중복된 표기를 바로 음운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술할 수는 없다. 대표적인 예로 동명사어미 '-ㅁ[ㅁ]'과 '-ㄱ[ㄴ]'의 생략 표기와 '-ㄱ[ㄴ]-'이나 '-ㄹ[ㄹ]-'의 중복 표기를 들 수 있다. 그렇지만 '-ㄹ[ㄹ]-'의 중복 표기는 자음 뒤의 환경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음운론적 가치를 가진다. 이 점은 고려 중기에 이미 매개모음 '-으/으-'가 존재하였음을 암시한다.

구결 표기의 불완전성은 하나의 문법 형태를 하나의 구결자로 적는 관습에서 비롯된다. 즉 각종 이형태의 음상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때가 많다. 그러나 부동사어미(연결어미) '-ㅓ[아]'의 異形態 '-야'를 '-ㅑ[야]'로 표기하여 음상을 제대로 반영하려는 시도가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구결 자료를 이용하여 음가론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구결자 'ㅊ'는 15세기의 'ㄷ'에 대응하기도 하고 'ㄷ'에 대응하기도 한다. 이 점을 이용하여 'ㅇ'의 존재를 부정하는 논의를 펼칠 수 있지만 잘못하면 극단적 단순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구결 자료는 문법 형태만을 보여준다는 점이 중요하다. 문법 형태에 나오는 음운이나 음절만을 대상으로 하여 당시의 음운체계나 음절구조체계를 논의할 수는 없다. 문법 형태에 한정된 관찰을 모든 어휘 형태로 확대하여 바로 적용한다면 극단적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결 자료에서 발견되는 몇몇 형태음소론적 교체는 다른 자료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므로 희소 가치가 크다.

구역인왕경 구결은 계사나 그 통합형 뒤에서 'ㄱ'이 약화·탈락하였음을 보여준다. 다만 존경법 어미 '-ᄀᆞ[겨]-'의 'ㄱ'은 이 환경에서 약화·탈락하는 일이 없다. 반면에 강조법(감탄법) 어미 '-ㅁᄀᆞᆯ[골]/ㅁ[고]-'의 'ㄱ'은 존경법 어미 '-ㅅ[시]-' 뒤의 환경에서도 약화·탈락하는 일이 있다. 이것은 'ㄱ' 약화·탈락 현상이 형태론적 제약을 많이 받고 있었음을 뜻한다.

'-ㅁᄀᆞᆯ[골]-'의 'ㄹ'은 'ㄴ, ㄷ, ㄹ, ㅅ' 등의 舌端 자음 앞에서 탈락한다. 그러나 자음 'ㅁ'이나 모음 앞의 'ㄹ'은 탈락하지 않는다. 또한 'ᄉᆞᆯᄒᆞ쇼[들나쎠]'의 '-ᄀᆞᆯ[ㄹ]-'은 탈락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어간 모음이라 그런 것인지 아니면 'ㄹ' 탈락이 수의적으로 적용되어서 그런 것인지는 아직은 밝힐 수 없다.

종결어미(정동사어미) '-ㅣ[다]'는 계사나 그 통합형 뒤에서 '-ㅱ[라]'로 교체된다. '-ㅣㅱ[이라]'를 연결어미(부동사어미) 위치에 온 것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종결어미 위치에 온 것들도 있다. 그런데 내포문 혹은 피인용문의 '-ㅣ[다]'는 '-ㅱ[라]'로 교체되는 일이 없다. 15세기에서는 이른바 의도법 어미 '-오/우-' 뒤의 '-다'도 '-라'로 교체되었으나 석독구결에서는 그런 예가 발견되지 않는다.

15세기에는 시상법 어미 '-ᄂᆞ-' 바로 뒤에 '-오-'가 오면 축약이 일어나 '-ᄂᆞᆫ-'로 실현된다. 그러나 석독구결의 '-ㅏ[ᄂᆞ] + ㅇ/ㆆ/ㅅ[오]-'는 축약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다만 일부의 예에서 축약이 일어나 '-ㅈ[노]-'로 실현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축약은 수의적으로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존경법 어미 '-ㅭ/ㅿ[시]-'에 'ㅇ/ㆆ[오]-'가 뒤따를 때에는 축약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誦讀口訣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ㅭㅇ/ㅿㆆ[시오]-'가 '-ᅀᅩ[샤]-'로 축약된다. 이것은 15세기의 '-샤-'도 '-시 + 오-'로 분석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존경법 어미 '-ㅭ/ㅿ[시]-'나 사동 접사 '-ㅣ[이]-' 바로 뒤에 연결어미 '-ㅇㅏ[아]'가 올 때에는 'ㆆ' 삽입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처럼 특이한 형태의 뒤에서만 일어나는 음운 현상을 일반화하여 기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ㆆ' 삽입 현상은 형태론적 제약을 심하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구역인왕경을 비롯한 석독구결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음운체계나 음절구조체계를 논의하는 것은 위험하다. 무엇보다도 각종 어휘 형태에 나올 수 있는 자음이나 모음 또는 특이한 음절구조를 외면해 버리는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여러 형태음소론적 교체 현상은 다른 자료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기에 오히려 그 가치가 크다. 석독구결에서는 수의적이었던 형태음소론적 교체가 후대의 송독구결에서는 필수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국어음운사에서 형태음소론을 거론할 때에는 이를 제외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南豊鉉(1998), "瑜伽師地論(권20)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硏究 3.

南豊鉉·沈在箕(1976), "舊譯仁王經의 口訣硏究(其一)", 「東洋學」 6, 檀國大 硏究所.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고대국어)』, 국립 국어연구원.

李建植(1996),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助詞에 대한 硏究",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李丞宰(1994), "高麗中期 口訣資料의 形態音素論的 硏究", 「震檀學報」 78.

———(1998), 고대 국어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고대국어)』, 국립 국어연구원.

李丞宰·沈在箕(1998), "華嚴經 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口訣硏究」 3.

鄭在永(1998), "합부금광명경(권삼) 석독구결의 표기법과 한글 전사", 「口訣硏究」 3.

鄭在永·南星祐(1998), "구역인왕경 석독구결의 표기법과 한글 전사", 「口訣硏究」 3.